

바라밀현장 무하문화사랑방 봉사단 광명보육원 문화봉사

# 쿵더쿵~

## 아이들 마음 밝아져요



경기도 양주 광명보육원 문화공간 무하문화사랑방에서 사물놀이 수업이 한창이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대낮같이 밝은 달아 아~! 어둠 속의 불빛들이 우리들을 비춰주네에~!"

9월 27일 경기도 양주 광명보육원 무하문화사랑방에 모여 있는 10명의 아이들. 팽과리, 북, 징, 장구를 두드려 한바탕 소리풍어를 끝내는가 싶더니, 찰나의 정적을 뚫고 한 소리 굵은 음을 힘차게 부어 올린다. 소리가 내가 되고 내가 소리가 되는 지금 이 순간, 그들을 구속하고 규정짓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가난과 버림의 무게를 지고 보육원에 몸담게 된 아이들은 '나'를 드러낼 줄 모릅니다. 사물놀이를 배우면서 나를 얘기하는 법, 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매주 토요일 보육원을 찾아 사물놀이를 지도하는 무하문화사랑방 봉사단(단장 이근후,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근후 박사가 95년 '무하문화사랑방'이라는 문화공간을 지어 광명보육원에 기증한 이래 9년째 이어온

악기연주 통해 표현하는 법 가르쳐 창의력 위한 글짓기, 독서등 지도

'문화 봉사단'이다. 세월을 거치는 동안 소고를 칠 줄도 모르던 아이가 소고춤을 추고 장구를 들지도 못하던 아이가 장구 장단에 어깨를 들썩이게 됐다.

"장구 선생님, 징이 너무 어려워요. 전 그냥 장구 칠래요."

"지선이가 징을 제일 잘 치잖아. 지선이가 실력 아니면 우리 팀이 이만큼이라도 하겠네."

사물놀이를 이끄는 장구선생님 장현숙(55)씨는 아이들의 숨은 엄마로 통한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떤 아이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 함께 모여 사는 이곳에 '평화로운 집사'를 심어준 사람이다. 초급반에서는 소고 춤사위를 가르치며 공명체 식구간의 호흡을 강조하고, 고급반에서는 악기연주를 통해 관계 속에서 나를 자신있게 표현

하는 법을 가르친다. 사물놀이 한 판 속에 불교적 상생의 가르침을 아름답게 꽃피운다.

이들의 '문화 봉사'는 사물놀이에만 머물지 않았다. 정기적으로 문화 인물들을 초청해 아이들과 만남의 시간을 주선해 주기도 하고, '무하문화사랑방'을 예술인들의 전시 공간으로 개방하기도 했다. 또한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워주기 위해 글짓기와 독서 등을 끊임없이 장려해 와, 최근 경기도 내 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화 대회에서 여러 명의 입상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문화봉사 프로그램 덕분에 아이들이 눈에 띄게 밝아졌어요. 보육원 아이들 얼굴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살아있는 표정'을 읽을 수 있게 됐지요."

광명보육원 보육교사 이현애(28)씨 말대로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그늘을 볼 수 없다. 그 맑은 얼굴이 마음으로 전해진 것일까, 몸과 마음에 병이 있는 신일 원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나이답지 않게 의젓하다. 온몸에 부

스럼이 오른 아이를 새로 온 친구라며 소개 하더니, 불에 쪽하니 입맞춤까지 전하는 아이들이다.

"매달 얼마봉사단이 아이들과 함께 묵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맨살로 부대끼며 키우는 사랑만큼 더한 게 없다 싶어서 시작하게 됐지요."

묵욕봉사로 엄마의 온정까지 전해주려고 하는 무하문화사랑방 봉사단의 마음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물놀이에서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 김덕수 사물교육원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는 보육원 내 공간들을 자연학습장과 체전발, 공연공간 등으로 새롭게 단장하고자 자금과 인력을 모으고 있기도 하다.

전방위 문화봉사단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은 무하문화사랑방 봉사단. 설레는 미래가 있어 기다려지는 봉사단의 내일을 조심스레 기대해 본다. 광명보육원=(031) 855-5161

양주=강신재 기자 thalswhy@buddhapia.com

###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예세 왕모 라마 (上)

## 금강승의 지혜 생활화

티베트의 모든 민중이 가장 가슴 가까이 있다고 느끼는 성인 밀라레파(Milarepa, 1052~1135). 이 밀라레파의 환생으로 인정받으며 '금세기의 밀라레파'라고 불리는 칼루 린포체(Kalu Rinpoche, 1905~1989)는 매우 고요한, 빛나는 눈을 가진 은사였다. 그런 칼루 린포체를 밀라레파의 환생이며 위대한 성인이라고 선언한 사람은 16대 카르마파(Karmapa)이다. 칼루 린포체가 히말라야 산속의 석굴로 들어가 홀로 12년 명상을 한 것도 밀라레파와 닮은 점이다. 칼루 린포체가 12년동안 계속한 독거명상에서 사옹한 장소는 야생이나 다름이 없어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곳에서 하루도 배겨나지 못할 곳이었다. 라즈푸 석굴은 입구가 하도 커서 매서운 바람이 철새 없이 불어닥쳤다. 아무는 석굴 안에는 기어 다니는 곤충들도 많았다고 한다.

칼루 린포체는 책도 여러 권 썼는데, <부드러운 속삭임(Gently Whispered)>을 비롯한 7권의 저서가 서구권에 소개되어 있다. 스님을 중심으로 한 카규파의 사원을 다수 설립한 그는 뉴욕 주 와핑거즈폴즈(Wappingers Falls)에 설립한 카규 툴텐힐링 사원(Kagyü Thubten Choling Monastery)이 미국 동부의 18개 센터를 관장하고 있다. 그밖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도 그가 설립한 불교 센터가 있다.

칼루 린포체 문화에서 공부한 후 그의 번역위원회의 업무를 맡아보며 하와이의 금강승재단(Vajrayana Foundation)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바로 예세 왕모 라마(Lama Yeshe Wangmo)다.

1949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태어난 예세 왕모는 28세 때 캐나다에서 티베트 불교의 어머니인 예세 초갈은 여신 사라바티의 화신 또는 발현이라고 믿어지는데,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은 여승이었다. 예세는 '다함이 없는 원초의 지혜'를, 초갈은 '호수의 정복자, 대양과 같은 지혜를 가진 승려'라는 뜻이다.



예세 왕모라마

8세기경 <티베트 사자의 서>를 쓴 인도 출신의 고승 파드마 삼바바의 수행지도 아래 예세 초갈은 엄청난 고행을 견디내며 금강(金剛)의 몸을 얻었다. 225세까지 살리라는 예언이 주어진 그에게는 '장수(長壽)하는 찬란한 푸른 빛의 대사(Radiant Blue Light Master of Longevity)'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파드마 삼바바는 그녀의 성취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 너는 네가 원하던 것을 스스로 얻었으니,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라." (계속)

김재경 기자

### 칼루 린포체에 공부 금강승재단 지도자

### 예세 초갈 모델로 참된본성 식별법 제시

## 탁상공론 NO, 현장에서 뛰다

부산 낙동종합사회복지관 '모니터 봉사단'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의 '모니터 봉사단'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부산 낙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임광수) 복지사 양현명(26)씨는 복지관 사업의 아이디어뱅크로 통한다. 그에게는 지역의 현안에 맞는 사업 아이디어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시급한 복지사업을 끌어내는 양 씨, 그에게 비결을 물으니 뜻밖의 대답이 나온다.

"모니터 봉사단의 시간과 노력이 있어 가

현장의 복지수요와 민심 등을 파악해 왔다. 그리고 매월 셋째주 목요일마다 한 자리에 모여 모니터 결과를 토론했고 필요한 복지 활동을 논의한다. 집수리 대상자를 파악하는 것부터 재해복구 사업 현장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활동영역에는 특별한 경계가 없을 정도다.

봉사단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봉사를 비롯, 현장들

### 시설 방문 상황체크...봉사로 연결

능한 일이다." 복지사 양 씨를 중심으로 광경숙 씨 등 지역의 부녀회장 10명으로 이뤄진 '모니터 봉사단'은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의 든든한 후원자다. 물질적인 후원도 후원이지만, 그들의 '정보제공'은 금전적인 가치를 넘어선다. 이들은 "책상머리에 앉아 만드는 복지"는 탁상공론"이라며 틈날 때마다 지역을 누비며

다니며 크고 작은 노력봉사로 아끼지 않는다. 모든 것이 나 아닌 것이 없다는 연기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활동한다는 모니터 봉사단. 이들의 바람도 불법민감이나 크고 깊다.

"이 세상이 불국토 되는 날까지 뛰고 싶어요." (051)271-0560

강신재 기자

## 제1회 전국 중학생 컴퓨터그래픽 정보검색 경진대회



- ▶ 참가자격 : 전국 중학교 재학생
- ▶ 대회부분 : 가) 컴퓨터 그래픽 부문 - 캐릭터 디자인 - 포스터 디자인 - 심벌마크 디자인 - 브로슈어 디자인 나) 정보검색부문 - 이론 40% - 실기 60%
- ▶ 대회일시 : 2003년 10월 14일(화) 오후 1시 ▶ 대회장소 :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 ▶ 대회접수 : 가)접수기간 - 2003년 10월 1일 ~ 10일(미강 시간 오후 5시) 나)접수방법 - 본교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 및 방문 접수(행정실) 본교 홈페이지에서 대회참가신청서 1부를 다운 받아 작성하고, 현재 재학중인 중학교의 학교장 추천서 1부를 함께 제출하여 접수함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시에 한함) 다)본교 홈페이지 - http://cheongdam.hs.kr

학교 주소 - (우) 451-803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96-1  
학교 전화 - 교무실 031)691-9100 행정실 031)691-8095  
특성화부 031)691-5478 / FAX 031)691-8096

- ▶ 후 원 : 평택시·평택교육청·평택상공회의소·평택문화원·기남방송·현대불교신문
- ▶ 주 최 :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 ▶ 주 관 : 도선사·청담문화재단
- ▶ 시상내역

구분	시상인원	상 금	기타특전	구분	시상인원	상 금	기타특전
대상	부문별 각 1명	부문별 700,000원	본교 입학자격 및 3개년 장학금	동상	부문별 각 3명	부문별 200,000원	본교 입학자격 및 1학기분 장학금
금상	부문별 각 1명	부문별 500,000원	본교 입학자격 및 3개년 장학금	특별상	부문별 각 5명	상 품	본교 입학자격 부여
은상	부문별 각 2명	부문별 300,000원	본교 입학자격 및 1개년 장학금	입선	부문별 약간명	-	본교 입학자격 부여

- ▶ 심사위원 : 정보 및 디자인 분야의 권위있는 관계 대학교수와 본교의 컴퓨터관련 교사 및 디자인 교사로 구성
- ▶ 심사발표 : 2003년 10월 18일(토) (예정) ▶ 시상일시 : 2003년 10월 21일(화) (예정)

꿈이 있는 학교 열정이 있는 학교  
21세기 디지털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인적자원 지정 자율학교 · 특성화 고등학교

